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The nature and task of Christian University)

고신대학부설 교회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이근삼*
공동연구원 김성수**
공동연구원 황창기***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대학부설연구소지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 차 ◇

- I. 서 론
- II. 학교의 기원과 발달
- III. 기독교대학 발달의 역사적 배경
 - 1) 로마시대의 고등교육
 - 2) 초대 기독교사회에서의 고등교육
 - 3) 중세의 대학
 - 4)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의 고등교육
 - 5) 미국의 고등교육과 기독교교육
- IV.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 1)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 2) 기독교대학의 존립 타당성(사명) : 신앙과 학문의 통합
- V. 결 론

I. 서 론

19세기 초엽, 한국사회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선교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이들은 한국민의 현대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다.¹⁾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고등교육기관들은 당시 주로 두가지 주요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자체의 확장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발전이라는 과제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의 주요 역할은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근세초 한국사회에 새로운 과학기술들, 예를 들

* 교수, 이론신학 ** 부교수, 교육철학 *** 조교수, 신약학

면 의학과 농업, 공업기술지식의 도입에 한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이 감당하는 것이었다.

일본 36년간의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도 비록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증진 정책을 억제하고 주저했지만 기독교지도자들은 한국민족을 해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지도자들은 일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다양한 기독교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국가지도자들은 당시 기독교고등교육기관들이 배출해 낸 인재들이다.

기독교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도 또한 많이 향상되었으며, 많은 하류계층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들 기독교교육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계급지향적이었던 전통적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이 교육기회를 얻고, 하류계층의 자제들이 기독교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기독교고등교육의 개념은 기독교신앙과 애국심,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봉사(service)라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대표해 보여 주었다. 이들 기독교고등교육기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이와같은 근대화된 교육형태의 존립이 훨씬 더 지체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고등교육의 영향이 점차로 쇠퇴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1945년 조국해방 이전 세대에게 있어서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데 팔목할 만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계속되어 갈 것 같지도 않으며, 발전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해방이전 한국사회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는 한국민의 애국심과 동일시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기독교고등교육의 이와같은 전통적인 목표물(target)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가 급속히 진보 발전하고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한때 서구 사회의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는 역할로서의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의 명성이 이제는 의문시 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이 더 이상 한국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은 일반 고등교육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때로는 비기독교적 방법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학과의 증설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독특한 이념과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다는 흔히 “상업적인”이유에 바탕을 두기도 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대학과 비기독교대학 사이에 그 분위기에 있어서 마저도 어떤 차이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대학이 그

자체의 독특한 철학과 본질, 이념, 특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의 본질과 사명을 새로이 규명하고, 현 위치를 확인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서의 존재 타당성(validity)을 검토 모색하는 일은 필히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II. 학교의 기원과 발달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미래사회 속에서의 존립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했는가를 고찰하고, 나아가 대학(기독교대학)의 역사적 발달배경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라는 제도는 가족(가정)제도와 같이 창조시에 직접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아니다. 학교를 학교되게 하는 존재론적 법칙(Ontological law)의 형태로 주어졌다. 실제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제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신자부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다. 교육의 명령은 처음부터 교사집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어졌다. 부모들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이 하나님으로 부터 부모에게 위임되어진 것이다. 요컨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은 하나님의 신성하신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²⁾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학교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교육활동을 담당해 왔다. 사회구조와 문화양상이 비교적 단순했던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대체로 참여, 시범, 모방의 형태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모들로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교사집단)과 구조를 모색하게 되고 여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책임과 권위의 일부를 위임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학교체도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라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문화의 보존 및 전승의 보수적 기능과 전승된 기존문화의 개혁 또는 발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고안해 낸 하나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다.³⁾

사회제도로서의 학교가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은 학교가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상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⁴⁾ 따라서 학교 역시 그 전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학교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미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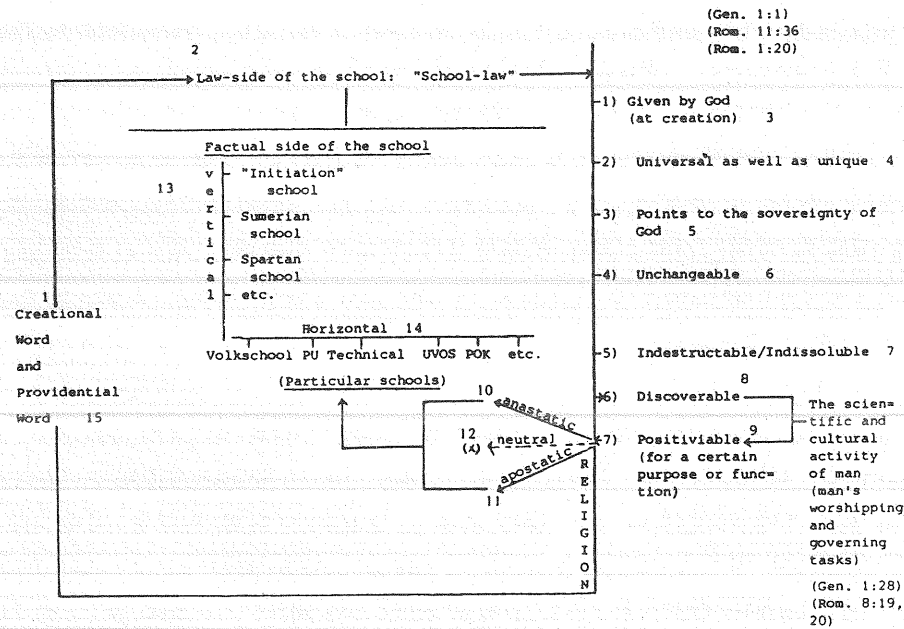
그분의 주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창조영역이다.⁵⁾

그러나, 학교제도는 결혼제도와 같이 창조시에 직접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학교되게 하는 기본적 원리(the principle)⁶⁾, 존재론적 구조(the ontic structure)⁷⁾, 또는 구조적 규범(the structural norm)⁸⁾의 형태로 주어졌다. 이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조직화하고 구체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과학적, 문화적 활동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체화의 작업이 종교적 존재(religious being)로서의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 맞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구체화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또 그 어떠한 사회에도, 학교의 존재론적인 법칙 그 자체를 폐기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학교의 기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Diagram : Flow-chart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school in human society



(Explanation of diagram)

- * The ontic law valid for the school was instituted by God, namely by His Creational Word (1).
- * The ontic law for the school (2) is characterized by several properties: it was, first of all, given by God at creation (3); it is universal as well as unique (4); it points to the sovereignty of God (5); it is unchangeable (6); indestructable and indissoluble

into the factual-side of reality (7); it can and must be discovered and be given positive form by the scientific and cultural activity of man (8, 9) (cf. Gen. 1:1; Rom. 1:20; 11:36; Gen. 1:28; Rom. 8:19 - 20).

- * The process of positivization of the ontic law for the school may take an anastatic direction (10) or an apostatic direction (11) according to men's heart, but is never neutral (12).
- * Particular schools (the historical line) (13) and the diversity of school (the horizontal line) (14) are therefore various forms of concretization, actualization or positivization of the ontic law for the school, which was given by God at creation,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of man.
- * The process of positivization is maintained by God's Providential Word (15).

III. 기독교대학발달의 역사적 배경

1) 로마시대의 고등교육

고대의 고등교육은 자유민을 위한 교양교육(liberal arts)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는 원래 로마 공화정시대에 노예와 상공인(craftsmen)들의 교육에 반대되는 자유민의 교육에 적절한 지식을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양교육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과목은 문법(grammar), 수사학(rhetoric), 논리학(logic), 수학(arithmetic), 기하(geometry), 천문학(astronomy), 그리고 음악(music)이었다. Cicero는 *de Republica*, I .17에서 이들 학과목들을 "인간성 개발에 적합한 과목"(the arts appropriate to humanity)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Cicero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인간성 개발(humanity)을 공공의 시민생활(public life)과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의 시민생활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양교육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공화국에서 시민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의 장래 직업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만약 그가 자기의 직업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맥락속에서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그래서 건축가며 기술자였던 Vitruvius는 당시 로마사회에서 극도로 존경받는 직업이었던 건축가(architect)의 훈련에 관해 저술을 하면서 말하기를 건축가는 반드시 “a man of letters, a skillful draftsman, a mathematician, familiar with scientific enquires, a diligent student of philosophy, acquainted with music; not ignorant of medicine, learned in the responses of the juriconsults, and familiar with astronomy and astronomical calculation.”⁹⁾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Cicero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⁰⁾

no man has ever succeeded in achieving splendour and excellence in oratory, I will not say merely without training in speaking, but without taking all knowledge for his province as well.

건축가가 로마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긴 하였지만, 최고의 영예는 웅변가(orator)와 변론가(advocate)에게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고등교육은 수사학적이며, 문리적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였다. 회랍고전어와 로마문학에 대한 연구는 웅변술의 훈련과 함께 로마 시민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로마학교는 숙련된 기술자를 생산해 내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사회에 대한 충성심과 선한 품성을 아동에게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처음에는 로마의 수사학적 교육이 건전한 지도자의 자질연마를 위해 만족할 만한 교육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과거에 대한(특히 고대 헬라 세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공화정시대에서 제국주의 시대로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수사학적 교육은 점차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고전적인 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되었고 전통적인 로마교육은 그 특징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초대 기독교사회에서의 고등교육

초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사상에 기반을 둔 수사학적 교양교육과 기독교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간에 대립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교사상에 만연된 문학과 과학을 부패타락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교양교육을 기독교신앙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어떤이들, 특별히 헬라의 교부들은 회랍교육의 핵심을 이룬 이교문학과 철학적 지식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찾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성 Basil은 “Address to the youth, how they can read heathen authors to their profit.”라는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Panegyric on st. Basil*에서 Gregory Nazianze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기도 하다.¹¹⁾

I take it as admitted by men of sense, that the first of our advantages is education; and not only this our most noble from of it, which disregards rhetorical elements and glory, and holds to salvation, and beauty in the objects of our contemplation: but even that exzternal culture which many Christians ill-judgingly abhor, as treacherous and dangerous, and keeping us afar from God. For as we ought not to neglect the heavens, and earth, and air, and all such things, because some have wrongly seized upon them, and honour God's works instead of God: but to reap what advantage we can from them for our life and enjoyment, while we avoid their dangers; not raising creation, as foolish men do, in revolt against the Creator, but from works of nature apprehending the Worker, and, as the divine apostle says,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Christ: ...and as we have compounded healthful drugs from certain of the reptiles; so from secular literature we have kreceived principles of enquiry and speculation, while we have rejected their idolatry, terror, and pit of destruction. Nay, even these have aided us in our religion....

이교학문에 대한 라틴 교부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더욱 더 비판적이었다. Tertullilan의 다음 말은 유명하다.¹²⁾

What indeed has Athens to do with Jerusalem? What concord is there between the Academy and the Church? What between heretics and Christians? Our instruction comes from “the porch of Solomon,” who had himself taught that “the Lord should be sought in simplicity of heart.” Away with all attempts to produce a mottled Christianity of Sotic, Platonic, and dialectic composition. We want no curious disputation after possessing Christ Jesus, no inquisition after enjoying the gospel.

그러나 심지어 Tertullian마저도 기독교인들에게 교양교육을 받도록 조언하였는데 그것은 물론 이교학문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학문”(divine studies)과 또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본질적인 준비로서 “세속학문”(secular studies)의 필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동이 이교사상에 압도당해 버리는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¹³⁾

당시 초등교육수준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육적 정비작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가 철저하게 이교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학교들을 완전히 회피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가 이교적으로 머물긴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와같은 학교에 보내고 대신에 이 교육에다가 카테키즘(Catechism)을 보충하였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이교적인 학문이 기독교

라는 베일 뒤에 가리워져 변장되어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여기서는 이교학문이 대체로 무시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학교에서 이교문학과 학문들을 취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¹⁴⁾

고등교육의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동방세계에서 Catechetical School의 발흥이었는데, 이 학교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는 Clement와 Origen의 지도하에 영위되었던 Alexandria의 학교였다.¹⁵⁾

이들 학교들은 승려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독교교리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탐구와 연구의 중심지였다. 그 교육의 강조점은 웅변술의 훈련에 있었다기 보다는 학문에 있었다. 동방의 여러 학교들의 경우와 같이 그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적(encyclopedic)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목들은 철학으로 연결되었으며 기독교신학과 성경주석의 연구로 연결되었다.

동유럽의 여러 Catechetical School은 신학적, 해석학적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창의적인 센타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문에 활기를 부여한 기독교는 극도로 헬라화된 그런 종류의 기독교였다. 예를 들어 Clement는 기독교를 이교적인 종교와 철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alternative)으로서가 아니라 이교적인 종교와 철학의 자연적인 완성(fulfilment)으로서 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구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이라고 말하였다.¹⁶⁾

나아가 헬라 철학은 보다 높은 통찰수준의 기독교 생활화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신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보조수단이기도 하였다. Clement는 말하기를 철학이 없이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철학이 없이는 보다 깊은 신앙세계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방의 여러 학교들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Origen이 자기의 젊은 친구인 Gregory에게 보낸 충고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¹⁷⁾

I am anxious that you should devote all the strength of your natural good parts to Christianity for your end; and in order to do this, I wish to ask you to extract from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what may serve as a course of study or a preparation for Christianity, and from geometry and astronomy what will serve to explain the sacred Scriptures, in order that all the sons of the philosophers are wont to say about geometry and music, grammar, rhetoric, and astronomy, as fellow-helpers to philosophy, we may say about philosophy itself, in relation to Christianity.

Clement와 Origen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지선(至善)의 이교사상과 결합시킨 학식있고 교양있는 사람 곧, 'gnostic' Christian을 배출해 내는 것이었다.

기독교신앙과 이교학문간의 이와같은 통합적이며 절충주의적인 이해방식에 대한 St. Augustine의 반대는 잘 알려져 있다. *credo ut intelligam*라고 하는 그의 표어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획득한 지식체를 씌우는 두경(capstone)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의 전제조건(precondition)이라는 그의 신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신앙은 지식에서 그 성취를 이룬다는 Clement와 Origen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Augustine은 Clement와 Origen과는 달리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지식은 인간의 지상생존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과는 거리가 먼 지식 곧, 하나님과 인간 영혼에 대한 지식이라는 주장에 확고하였다. "God and the soul, that is what I desire to know. Nothing more? Nothing whatever!"¹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 영혼에 대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며 인간영혼은 변화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ugustine에게 있어서는 자연철학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신학의 여지만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은 먼저,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획득되고 다음으로, 이성적 성찰을 통해서 획득되는데,¹⁹⁾ Augustine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생활의 순전한 목적이었다. *Concerning the Trinity*에서 Augustine은 지혜(wisdom)와 지식(knowledge)의 두가지 인지종류를 구분함으로써 이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⁰⁾

If therefore this is the right distinction between wisdom and knowledge, that the intellectual cognizance of eternal things belongs to wisdom, but the rational cognizance of temporal things to knowledge, it is not difficult to judge which is to be preferred or postponed to which....The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which we have laid down is a most evident one, in that the intellectual cognizance of eternal things is one thing, the rational cognizance of temporal things another; and no one doubts but that the former is to be preferred to the latter.

Augustine에 의하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명상은 그의 창조세계를 조사함으로써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먼저 외부 자연으로 부터 영혼(내적향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올라감으로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현세적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공리주의적 관심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교양교육에 대한 Augustine의 정당화는, 비록 그것이 그의 작품의 전체 맥락으로 부터 추상화 시켰을 때는 Gregory Nazianzen 및 Origen의 견해와 유사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Augustine 자신이 일반학문에 부여한 제한된 신학적 목적의 견지에서 이해되어 져야만 한다. Augustine은 이와 같은 문제를 *On Christian Doctrine*에서 가장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한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¹⁾

Moreover, of those who are called philosophers, and especially the Platonists, have said aught that is true and in harmony with our faith, we are not only not to shrink from it, but to claim it for our own use from those who have unlawful possession of it. For, as the Egyptians had not only the idols and heavy burdens which the people of Israel hated and fled from, but also the vessels and ornaments of gold and silver, and garments, which the same people when going out of Egypt appropriated to themselves, designing them for a better use, not doing this on their own authority, but by the command of God, the Egyptians themselves, in their ignorance, providing them with things which they themselves were not making a good use of; in the same way all branches of heathen learning have not only false and superstitious fancies and heavy burdens of unnecessary toil, which everyone of us, when going out under the leadership of Christ from the fellowship of the heathen, ought to abhor and avoid; but they contain also liberal instruction which is better adapted to the use of the truth, and some most excellent precepts of morality; and some truths in regard even to the worship of the One God are found among them. Now these are, so to speak, their gold and silver, which they did not create themselves, but dug out of the mines of God's providence which are everywhere scattered abroad, and are perversely and unlawfully prostituting to the worship of devils. These, therefore, the Christian, when he separated himself in spirit from the miserable fellowship of these men, ought to take away from them, and to devote to their proper use in preaching the gospel.

요약하건대, 교양교육에 대한 Augustine의 접근은 Clement와 Origen,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라교부들의 접근방법보다 훨씬 더 협의적이었다. 그러나 Augustine 역시도 시민사회에서 시민자질을 위한 훈련이라는 로마적 교육의 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 교양교육이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교양교육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의 크리스찬의 시민권(citizenship)이었다. 이 새로운 도성에서 시민의 활동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명상적 지식을 지향한다.

3) 중세의 대학

중세 초기의 지적부흥은 대부분 Cassiodorus와 Isidore of Seville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승되어 온 로마교육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한 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7 자유학과(The seven liberal arts)는 적어도 명목상에 있어서라도 cathedral과 monastic schools에 재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과목들에 새로운 내용이 가미되었다. 수사학(rhetoric)이 이제 법률(law)을 포함하였으며 기하학(geometry)이 지리, 자연역사와 약초연구 등을 포함하였고 천문학(astronomy)이 교회력의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예술, 문학, 역사와 같은 것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중세 초기 서구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직자(승려)들 뿐이었다. 교양교육은 성직자로서의 활동에 교양교육이 갖는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부분의 중세인들은 실제적인 지식을 이론적인 지식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논의의 일반적 주제는 “어떠한 전문적 학과목이 더 고상하나?” 즉 “어느 것이 교양학과목에 더 가깝고 기계적인 학과목으로 부터 관계가 적은가?”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Aristotle)과 헬라인들을 따라 중세인들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가장 고상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의 개발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활동이며 이상으로 보았다.

중세의 고등교육을 수세기 동안 지배해 왔던 사상체계는 역시 스콜라철학인데 여기서 신학은 신앙을 변증하며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모든 학문들은 그들의 원리를 이성의 자연적 빛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생각하였다. 스콜라철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Thomas Aquinas는 기독교의 교리와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적 관을 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공통기반 위에서 비 기독교적 사상에 적응하는 단계에 도달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자신이 생각할 때에 비기독교 사상의 가장 정련된 체계라고 보는 희랍철학사상, 특별히 Aristotle의 사상과 결합시키는 통합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물론 그가 Aristotle의 사상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물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Aristotle을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재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사상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homas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와같은 모든 인간사상의 가장 고상한 산물을 취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교리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타당한 사상체계의 바탕으로 이용하며, 여기에 적절한 목적과 영광으로서 기독교적 교리의 왕관을 씌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체계에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Thomas Aquinas는 자연과 은혜(nature-grace)의 이원론을 택하였다. 즉, 자연의 영역에서는 모든 인간이 이성의 빛(the light of reason)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은혜의 영역에서는 신앙(faith)으로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²²⁾

Thomas Aquinas는 이 두 영역을 상호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함께 묶어야 하였다. 그는 자연의 영역으로 하여금 은혜의 영역을 뒷받침해 주는 하부구조로 봄으로서, 즉 은혜의 영역이 자연의 영역을 덮어 씌우는 상부구조로 봄으로서 양영역의 통합작업을 시도하였다. “은혜는 자연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 즉 은혜없는 자연은 불완전하며 자연없이 은혜는 기초가 없는 허공에서 의미없이 떠돌아야 할 뿐이라고 그는 보았다. 요약컨대, 중세대학의 종교적 지주는 Augustine의 견해보다도 Clement와 Origen의 견해와 훨씬 더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4)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의 고등교육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운동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며 그것은 곧 교육의 목적은 아동을 준비시켜 자신의 시민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사상의 재흥을 의미한다. Vergerius의 다음 말을 보자.²³⁾

Respecting the general place of liberal studies, we remember that Aristotle would not have them absorb the entire interests of life: for he kept steadily in view the nature of man as a citizen, an active member of the State. For the man who has surrendered himself absolutely to the attractions of Letters or of speculative thought follows, perhaps, a self-regarding end and is useless as a citizen or as prince.

시민으로서 인간생활은 교육의 적절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본질적으로 간주된 것이 교양교육이었다. 그 중에서도 건축가, 미술가, 조각가, 음악가, 시인 등이 인문주의자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르네상스를 통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정의된 중세교육과 학문의 한 지속적인 주제는 *pietas et doctrina*이다. 초기 기독교 세기 이래로 이 표어는 학문과 예배의 생활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한 역사가가 표현한 바대로 “the love of learning and the desire for God”의 정신은 중세의 monastic schools에 철두철미하게 침투해 있었다. 교양교육을 예배와 봉사의 생활에 종속시킴으로서 monastic community에 통합시켰다. 르네상스시대에 Brethren of the Common Life로 알려진 Netherlands의 quasi-monastic community의 산물인 the Devotio Moderna운동이 다시금 경건하고 학식있는 인간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강조는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역시 찾아 볼 수 있었다.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교양교육의 목적은 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식있는 인간 즉, *virtu et doctrina*를 생산하고 것이었다.²⁴⁾

Devotio Moderna운동과 humanist movement 모두의 관심은 이교학문과 신적계시간의 형식적 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문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건한 또는 덕이 있는 사람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이다. Erasmus, Agricola, Reuchlin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이 *pietas et doctrina*와 *virtu et doctrina*의 전통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종교개혁은 대체로 복구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종교개혁자 Luther는 비록 스콜라철학에 반대하였지만 고등교육은 교회와 국가의 복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Luther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을 때 그는 전형적으로 교부들의 유형대로 성경의 연구를 위한 고전어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고전문학이나 과학에는 많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인문주의나 스콜라적 학문에는 취미가 없었다.

독일의 교육을 실제로 개혁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바탕위에 올려놓는 일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훈련받고 인문주의 운동에 동정적 이었던 Melanchthon에게 맡겨졌다.²⁵⁾ 그는 교양교육에 대한 모든 교재를 구성했으며 고전어와 고전문학의 연구를 격려했고 또 교육적 자극과 충고로서 독일사회를 봉사하였다. Wittenberg, Tübingen, Leipzig, Frankfurt, Rostock와 같은 유서 깊은 대학들이 Lutherans에 의해서 개혁되었으며, Marburg, Königsberg, Jena, Helmstedt에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고등교육에 미친 칼빈주의적 종교개혁의 영향은 Lutheran의 영향보다 훨씬 더 심하였다. Paris 대학의 학생으로서 Calvin자신은 인문주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최초 연구는 Seneca에 대한 주석이었다. 그는 특별히 Cicero에 대한 동경을 잃지 않았다. 그는 또한 확신하기를 과학과 인문학과목들이 기독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⁶⁾ “고대 법률가들이 시민질서와 훈련에 대해서 그토록 공평하게 말한 진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철학자들이 자연에 대하여 훌륭하게 관찰하고 기묘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채 할 수 있겠는가? …의학을 발전시키며 그 수고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친 자들을 정신이상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수학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의 광란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기록한 고대 저서들을 감탄 없이 읽을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우수했는가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없이 그냥 찬양하고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심지어 타락한 인간이 된 후에도 얼마나 있는가를 저희들의 실례를 보고 배워 보기로 하자.”

칼빈 자신은 Geneva Academy의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Geneva Academy 설립을 위해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규칙을 제정하고 또 직접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의 후원하에서 Heidelberg 대학교가 개혁되었으며, 새로운 대학들이 Edinburgh, Cambridge (Emmanuel College), Leiden, Franeker, Groningen, Amsterdam, Utrecht, Nimes, Montpellier, Montauban, Saumur, Sedan 등에 세워졌다.

종교개혁시까지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봉사는 인간의 모든 일과 전문직 속에서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이들을 주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그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에 편만했던 지적-영적 귀족주의

(intellectual-spiritual aristocracy)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강조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첫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개진되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비록 중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말하기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봉사로 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세적인 이원론적 틀에서 벗어날려고 하였다. 인간의 목적에 대하여 Genevan Catechism(1541)에서 동일한 강조를 볼 수 있다.²⁷⁾ 그는 인간의 목적에 관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인데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섬기기를 배우고,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바라고 기대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축복의 유일하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설정한 목적은 중세의 주지주의적 목적(intellectualistic aim)이 아니며, 또한 인문주의자들의 단순한 문화적 목적도 아니고 교회와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인간을 훈련하는 목적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되어야만 하는 사실은 비록 ‘교육받은 성직자’(educated ministry)의 필요성이 기독교고등교육기관 설립에 주요 동기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배타적으로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Calvin은 *Ordinanc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불모지로 두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여 목회와 시 행정을 위한 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Calvin은 Luther이상으로 기독교 복음은 개인과 교회의 개혁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따라서 Calvin과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고등교육은 항상 굉장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 문제였다. 그 목적은 단순히 시민적이며 교회적인 전문영역에서 개인적으로 기독교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훈련만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사회개혁을 위한 보다 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비록 신학과 성경연구가 대부분의 기독교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이긴 했지만 Calvin주의자들과 루터파 학교의 교육과정은 인문주의자의 전통에 7자유학과와 철학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많은 다른 칼빈주의자들의 교육기관에 모델이 되었던 Genevan Academy의 교육과정은 성경과 신학 뿐만 아니라 고전어(Latin, Greek, Hebrew)와 고전문학, 예술, 과학등의 교과목을 포함시켰다. 또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Genevan Academy에서는 종교적 훈련(경건 훈련)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매일 수업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다. 하루에 한 시간은 시편을 찬송하는데 바쳤다. 주기도문, 신앙고백, 십계명을 모두 암송하였고

수요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두가 catechism을 공부하였다.

5) 미국의 고등교육과 기독교교육

1636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인 Harvard대학은 대부분의 초기 미국 대학들이 설립된 복음주의적 기독교 분위기와 신념을 대표해 보여 준다. 청교도들의 주요 동기는 분명히 교육받은 성직자의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Christo et Ecclesiae)에 헌신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1642년에 나온 책자 「뉴잉글랜드의 첫 열매」(New England's First Fruits)에서 Harvard대학 설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⁹⁾ “하나님이 우리를 뉴 잉글랜드로 옮긴 후에 우리는 집을 짓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준비하고 행정부서를 세웠다. 우리가 다음으로 바라고 찾는 것은 학문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영속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목사들이 죽은 후에 교회에 무식한 목사들이 남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Harvard대학 규칙에는 또 “모든 학생이 명백히 배우고 진지하게 잘 생각할 것은 자기 삶과 공부의 목적이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17:3). 그러므로 예수를 모든 바른 지식과 학문의 유일하신 기초로 삼아서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³⁰⁾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Yale대학교와 Columbia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후에 많은 대학들이 일어나면서 19세기에는 자유선택제도를 가지고 목적없는 교육이 되어 갔으며,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발달이 두드러짐으로 기술적 인문주의로 흘러갔다. 20세기의 교육사상은 크게는 자유선택제(the free elective system)에서 오는 무목적적 교육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래서 1909년 Harvard대학의 Lowell총장의 제창으로 “제한된 선택제도”(a limited elective plan), 즉 집중과 분산의 배합이 교과배정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집중과 분산계획이 반드시 그 목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많은 교육자들이 현대 미국 고등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교과배정에 있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근원에 있다고들 진단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전망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기독교는 교육과정에 통일성을 제공하고 교육에 목적을 제공하였다. 미국 교육에서의 기독교 역할의 쇠퇴와 종교적, 철학적 다양성의 발흥이 오늘날 미국 고등교육에 침투한 불안의 기본적 원인이다. 기독교대학은 목적과 신념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경영하는 Calvin대학을 생각해 보자. 1857년에 설립된 이 대학도 설립의 유일한 동기는 교회가 교육받은 목사들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고 일반적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³¹⁾

그런데, 1894년 기독교 개혁교회의 총회는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가지 중요한 결

정을 했다. 첫째는, 신학 예과생 외에 인문학과에 학생들을 받게 했고, 둘째는 인문학과에만 5인의 교수를 증원했다. 그후 인문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학들과 같은 학교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운동이 1880년대에 화란에 있어서 벌써 Abraham Kuyper의 인도로 일어났다. Kuyper와 그의 협력자들은 유능한 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기를 원했으나 옛 신앙 고백을 되풀이 하는데 만족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복음의 요청은 경건하기만 하고 문화를 포기하는 생활로서 정확하게 해답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개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0년에 Kuyper는 Amsterdam에 Free University를 설립하고 오직 신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성경적 기초에 두었다.

1895년에 출간된 자유대학교의 한문서에서 말하기를 “지식의 이론과 학문의 모든 유기적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문의 전체가 개혁주의 원리의 기초만이 학문의 전체적 방향을 잡도록 구성되어 저서 학문의 모든 국면을 이 원리로 인치게 한다”³²⁾고 하였다. Kuyper가 확신한 것은 기독교인 단체는 신학만이 아니고 모든 학과목이 성경적 기초에서 탐구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란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 운동에 발 맞추어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에서도 자기들의 신학교와 대학에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성명을 보면 Calvin대학 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학교의 인문학과는 대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한 인문교육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와 기독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학교로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의 특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며, 세속화된 대학들의 유해한 영향에서 지켜야 한다”³³⁾ “이와 같은 요망은, 종교는 널리 전파되어야 하고 세계관과 인생관 전반에 결정적 의의를 주어야 한다는 칼빈주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 목사 양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그 가장 넓은 범위에서 교육해야 한다.”³⁴⁾

계속해서 Berkhof는 칼빈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대학은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원리 가운데 그 존재 이유를 가진다. 그것이 바라는 중대한 임무는 이 원리를 모든 연구 분야에 적용시키고 모든 생활면에서 실천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학이 이 이상에 아직도 멀리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특수한 임무에서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 이것이 참된 칼빈주의 대학의 의미이다. 성경공부, 개혁주의 교리, 칼빈주의 등 몇 과목이 참된 기독교대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 색깔을 좀 풍기는 교수들이 이 모든 학과목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중 일관으로 우리들의 개혁주의 원리를 모든 학과목에 적용시키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³⁵⁾ 1921년 대학 요람에 나타나 있는 칼빈대학의 목적을 보면 “대학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교실공부, 학생들의 모든 지적, 정서적, 사색적 활동이 기독교 정신과 가르침으로 충만해지는 보다 크고 깊은 의미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대학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고찰이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러한 학과목의 교수에다 기독교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추가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을 보다 깊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특색있게 실시하는 대학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특색이 실현될 수 있는 몇가지 기초를 살펴봄으로서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³⁶⁾

IV.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1)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1. 창조(Creation)

바울은 영지주의가 육체를 멸시함에 대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³⁷⁾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죄는 사람이 창조된 물건을 즐길 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람이 잘못 사용할 때에 죄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대학을 해치는 또다른 형의 영지주의는 주장하기를, 사람은 2세계의 피조물로서 자연과 초자연, 세속과 영계, 세계와 교회 등 2원적인 것이라고 한다. 여기 자연, 세속, 세계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악의 근원이고, 초자연, 영계, 교회와 근본적으로 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영지주의는 기독교인들을 문화적 참여에서, 예술적 감상과 창작에서, 정치적·사회적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과학과 철학에 대한 오도된 공포를 낳게 한다. 그것은 신앙과 문화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방어적 태도와 때로는 반지성주의를 갖게 한다. 사실 자연, 세속, 세계 등의 용어는 애매한 것이다. 사람에게 자연적인 것, 예를 들면 지적 호기심과 예술적 능력과 정치적 관심과 같은 것은 신약의 “세상

적"인 도덕적, 종교적으로 악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범죄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다. "세속"이란 것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거룩한 것이다. 성경적 창조관은 자연의 모든 영역과 역사와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세계이다." 만물의 존재와 질서와 구조발전과 놀라운 가능성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 자연과 역사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의 몫을 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신자에게는 자연이나 역사가 자생, 자동, 자치, 자해의 것이 아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우리 앞에 과거의 조망과 새로운 지평을 놓아준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것은 천박한 사고와 무서운 불신앙을 낳을 것이다.

2. 인간(Man)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이 넓은 우주에서 유달리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의위 주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람은 이성적, 도덕적, 재능적 힘을 갖추어 창조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다. 사람은 또한 죄인임이 틀림없다.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적 능력은 부패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자로서 악을 제한하고 인격을 보존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발전시키고 훈련하여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발전, 훈련, 생의 방향은 기독교신자의 책임이고 청지기적 사명이다. 전 인격을 교육하고 학문과 탁월성에의 추구를 장려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기독교신자는 기독교신앙과 가치를 가르치는 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사고하고 자연을 개발하고 문화적 유산을 전승시키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교육자의 임무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긍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활동하도록 용기를 주고 자신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속과 성(聖)의 이원론의 여지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은 거룩하다.

사람은 마음으로 종교적 존재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종교적 존재이므로 그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지적이든 예능적이든,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상관없이 자기 신앙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골로새서 3:23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한다.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던 자들에 대한 반박의 말씀이다.

3. 진리(Truth)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만물의 창조주로 신앙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알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물리적 질서에 대한 진리, 인간과 사회에 관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전에 몰랐던 모든 진리도 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 초대 교부들은 그래서 "어디서 발견됐든지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의 세계가 다 기독교신자의 마땅한 관할영역이 된다. 물론 모든 저자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 참일 수는 없다. 어떤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어떤 것은 덜 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리는 어디서나 나타나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그것이 오해되기도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그리고 진리의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³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니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이 사실에 집중한다. 자연, 인간, 사회, 예술, 과학들을 그 창조주와의 합당한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진리를 탐구한다. 이 진리의 추구는 일정한 도덕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학문적 의욕과 결정, 지적 성실성, 자아 통제 등이다. 학문에 이런 봉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신자의 사물의 이해는 이성적 숙고와 무관한 신비적 조명으로는 성취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진리를 기독교신자의 마음에 증거하시되 성경계시의 연구와 기독교 신학의 이해에 관여된 지적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진리가 하나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서 성경에 가르친 진리와 다른 원천에서 얻은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성과 계시의 관계는 원리상 문화와 교회와의 관계보다 더 상반되지 않는다. 이성과 계시의 관계는 원리상 문화와 교회와의 관계보다 더 상반되지 않는다. 계시는 지식의 근원과 학문에 힘을 주고 이성은 계시된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계시와 이성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둘 다 선하고 유용하다.

신앙은 지식의 방편이나 지식의 근원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아 계시에 대한 마음의 개방이며 전심적 응답인 것이다. 신앙은 사람의 활동을 말살하지 않는다. 신앙은 오히려 활동을 하게 하고 지도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신자는 지적 기회와 노력을 제한하지 않고 목적있는 학문을 하도록 불을 붙여주고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경험이 되어서 지평을 넓히고 성찰을 깊게 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탐구의 새 분야를 개발하고 진, 선, 미를 판단하는 능력을 밀도 높게 하는 것이다.

4. 문화적 사명(The Cultural Mandate)

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신과 자연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셨다.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신앙과 문화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것은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며, 또 어떤 것은 특수 문화의 불완전에서 온다. 모든 문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책임은 그대로 있다. 그것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발전시킨 농사와 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그들이 건설한 도성, 국가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정의와 동정심이 유대 율법에 마련되고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왕들이 때로 실천한 것을 본다. 또한 의욕적인 사업, 노래와 사랑의 기쁨과 우정들을 읽는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알게 된다. 사도들이 주께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는 것과 저희 선교사업에 있어서 헬라의 철학적 개념을 복음전달을 위한 문화적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사람은 문화적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으므로 문화적 관련과 문화적 임무에서 피할 수 없다. 때로는 종교적 단체가 문화 밖에 있으려고 하나 그 자신의 문화적 임무를 가지고 부속적 문화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다. 창조 시에 주신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결코 철회되지 않았다. 아마 사람의 죄가 사물을 바꾸어 놓았고 문화를 악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문화에서 불러내어 그것에 참여하기 보다는 증거하게 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문화적 관련은 다 타락 후에 일어났다.

시편 8편에는 문화적 사명을 창세기 1장에 주어진 유일한 것으로 정의했고, 히브리서 2장에 시편의 말씀을 다시 말했다. 사람이 타락하여 문화적으로 실패했다는 불평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말한 후에 사람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행할 것을 말했다고, 39) 결혼과 돈과 정치적 권위와 같은 문화적인 것에 대한 신자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40)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는 문화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직접 영향을 입은 활동을 하는 문화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케 하셨다. 저희는 저희 생활로 그것을 증거한다. 예술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의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생활과 사상에 있어서 그의 손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 네 가지의 신학적 개념은 기독교교육에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대학은 학생들의 생활에서 이것들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화와 학문의 모든 생활이 기독교적 전망을 가지고 관철해야 한다. 모든 젊은 학생들의 인간 능력은 가능한 한 충분히 발전시켜서 그의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기독교대학의 존립 타당성(사명) :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그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통합시켜 나갈 주 아는 인간형성을 지향하고 이러한 과제에서 그 존립타당성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사명은 모든 창조 실재(reality)를 성경적 계시의 관점에서 불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41)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문헌비평에 있어서도, 모든 학문에서 우리는 실재를 성경적 관점에서 불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그의 삶의 근본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권위적(authoritative)이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며, 그것에 의해서 지도되고 계몽되어 지기를 목표로 한다.

기독교학자는 성경이 “초자연적인 신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다. “세속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에 맡겨 버리고 “신성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님을 알고 있다. 물론 성경은 철학이나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의 길을 인간생활에 대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로서 제시해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념의 틀(a basic framework of convictions)을 제공해 준다. 42)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실재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개진해 주는 종교적인 헌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기독교학자는 자기가 기독교신자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실재를 성경적 관점에서 불려고 노력한다.

기독교학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탐구대상은 자기가 직면하는 실재이다. 학문은 성경으로 부터 연역적으로 추론되어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확실히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 또는 문학 비평, 철학에 관한 교과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고를 위한 구조(structure)와 윤곽(framework)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학자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성경은 실재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재를 탐구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며 특권이다. 기독교는 사실을 무시하고 어떤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고수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편견을 옹호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창조실재의 본질과 구조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과 같다. 나아가, 성경적인 신념의 틀(biblical framework of conviction)은 어떤 영역에서는 보다 더 잘 정교화되어 있다. 성경이 수학이나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들 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문화적 활동과 산물을 다루는 학문, 그리고 신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이며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제 과학에서도 성경적 멧세지는 침묵하거나 적절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재라는 것이 성경과 관계없는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한 인간이라고 해서 실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의 관점은 왜곡을 가져온다. 물론 이 왜곡의 성격과 정도

는 아주 다양하다.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보다는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이 왜곡은 더 심하고 편만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왜곡의 제거는 우리가 실재에 대한 성경적 관점 또는 성경적 신념의 틀을 소유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이론적 탐구가 성경적 계시의 인도(빛) 아래서 행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지각(distorted preceptions)을 극복하고 실재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를 모든 완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바탕으로 가장 근원적인 곳에 모셔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이 과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관점이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다. 완전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적 계시가 우리의 학문활동에 구조와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형적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이 언급될 수 있다.

1) 지적활동의 주체—과학자

기독교 학문형성의 각 논의에는 어떤 구체적인 인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 요소들(부분들)의 합(合)으로 보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인간의 지적 활동을 종교적 신념(확신)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 것이다. 칸트(Kant)와 같이 인간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과학(학문)의 최종적 기준에다 인간의 합리성을 올려 놓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일리치(Ivan Illich), 홀트(John Holt) 등과 같이 실존주의적 인간관을 가진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과학의 최종적 기준에다 올려 놓는다.⁴³⁾

이러한 모든 관점에 대해서 칼빈주의(Calvinism)는 성경이 제공해 주는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인간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인류학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간의 독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학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독특성은 인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⁴⁴⁾

① 인간은 관계적 존재(a relational being)이다. 인간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문화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관계의 관점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② 인간은 통일적 존재(a unitary being)이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 또는 그의 종교적 관점들이 인간의 지적행위와 지성으로 부터 분리되어 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인간은 타락한 존재(a broken being)이다. 사탄(악)의 세력이 인간의 두뇌작용 역시 부패시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④ 인간은 소명적 존재(a called being)이다. 인간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반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 학자(학생, 지성인)은 자기의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가 다양한 국면(모양)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그의 학문 활동의 동기는 소명(calling)에 있다. 그는 학문활동에서 결코 자기중심적이 될 수 없으며,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보다 깊은 동기를 갖고 있다. Ream, R.J. (1972)은 *A Christian Approach to Science and Science Teaching*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⁴⁵⁾ "The Scientist must see that he cannot be a true scientist apart from Christ if only for the fact that apart from Christ he will embrace rationalism. Apart from Christ his motives will be self-oriented, humanistic, and secular, three sure obstacles to the obtaining of true and full knowledge. Apart from Christ he will see no revelation in Scripture or creation because in practice his approach in these two areas will be rationalistic. Apart from Christ he will see no sin that blinds and makes both man and creation abnormal. But in Christ, the Last Adam, who has in principle subdued all things to Himself, the scientist can see science as a vocation that indeed carries and exhibits the sanction and probation of God."

2) 학문의 공동체

실증주의(positivism)의 전통에는 인간적인 요인(human factor)이 항상 평가절하되어져 왔다. 인간의 창의성 같은 것에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감각적 지각과 귀납적인 방법이 항상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학의 임무를 주로 기술(description)의 관점에서 보아 왔다. Harre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⁶⁾ "On the positivist view this burgeoning of new concepts can have at best a literary purpose, providing a kind of attractive appearance to propositional structures and linking concepts that have only logical importance as bridges from observation statement to another."

그러나 1960년대 초엽에 와서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그의 소위 패러다임 이론(doctrine of paradigms)을 제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과학자의 패러다임이 하나의 'disciplinary matrix'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학문의 공동체는 그들이 하는 일체의 활동들은 물론 그들의 가설들과 가치관들 까지도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있는 패러다임 또는 자기의 intellectual framework에 의하여 크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착수하는 작동과 측정들은 어떤 주어진 경험을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수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모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과학자가 그의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고 그 실험을 통해 어떠한 감을 확실히 잡기 전에는 그가 하는 실험과 측정은 그가 한 관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더 기본적인 개념들을 나타내는 확고한 지표들이며 그들이 과학을 하는 데에 선택된

까닭은 그러한 작동과 측정들이 그 공인된 파라다임을 더 세련되게 전개하리라는 기약이 보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그러한 작동들과 측정들은 파라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주관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의 객관성을 지키려는 기초과학의 실험에 있어서도 실험기구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조작방법, 그리고 그 조작들을 통하여 얻는 실험치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그 과학자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받아들인 통합적인 이론 곧 파라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공동체는 학문의 동료들, 또는 국내외의 자기 영역의 여러 전문가들로서 구성된다. 인생관—세계관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학문의 공동체는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 토마스 쿤(T. Kuhn) 이래로 과학자를 과학의 형성에 중요하게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Toulmain, Polanyi, Feyerabend, Laszlo, Bar-Heller, Bunge, Suppes, Sneed, Stegmuller와 같은 사람들이다.

3) 탐구 영역

성경은 실재(reality)가 갖고 있는 통일성(totality)과 일관성(coherence)에 어떤 조망을 부여해 주고 있다. 예를들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창조세계의 통일성, 섭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재의 의미이다.

특히 실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① 실재는 어디까지나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창조된 실재는 그 어떠한 것도 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수 없다. 창조실재의 그 어떠한 요소도 인간의 제반활동을 이끌어 가는 지도지침적 원리(guiding principle), 또는 규범(norm)이 될 수 없다.

② 실재는 인간의 범죄후 계속적으로 악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염된 실재(broken reality)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활동영역(학문영역)에서 이 악의 세력을 타파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파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굴복시키는 활동을 위하여 함께 협조하는 것은 기독교인 학자의 임무이다.

③ 오염된 실재(broken reality)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

④ 타락하고 오염된 실재지만 어떤 법칙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법칙에 의해서 통치되는 실재이다.

⑤ 실재는 구조적이다. 따라서 창조의 구조와 섭리(유지)의 구조 그리고 구속의 구조간에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이들 구조들의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구조들에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존중되어야만 하는 어떤 관련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제도에 있어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돕는 배필(helpmate)이라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구체적인 결혼의 사례(sample)들을 모아 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것은 각 과학자의 구체적 탐구 영역은 보다 넓은 맥락(context)과 유기적인 일관성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학문적 활동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인간 주체와 분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인간주체는 그로 하여금 이 학문적 활동을 수행 가능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독교적 존재론(vision of reality)은 어떤 과학자에게나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탐구자의 파라다임 또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의 일부를 이루어 준다.

4) 다양한 탐구 방법

어떤 과학자에게든지 던져지는 한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나의 탐구영역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리고는 다시 “어떤 지식을 보증하기 위한 성찰(reflection)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일방적 방법, 즉 하나의 방법만을 절대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탐구영역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증주의(positivism)는 인간의 감각적 지각을 한 중요한 방법으로 끌어 올렸고 물리학을 모델 학문으로 추앙하였다. 그래서 인문과학 까지도 경험적이며 실험적인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문의 실천에는 방법의 다양성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연구의 예를 들어 보자. 인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간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전학이나 복잡한 신경계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인간발달의 어떤 시기등이, 특별히 문명의 발전단계와 관계해서 연구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인간에 관한 보다 완전한 지식이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의 방법들에 의해서 얻은 지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과학자가 어떠한 준거틀(framework)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인간의 관계적실존의 여러가지 맥락들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문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료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인간의 다른 관계에 근본적인 것임이 오늘날 심지어는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종교현상학이나 종교철학의 많은 연구들은 “종교가 갖고 있는 지도지침적인

힘”(guiding power of religion)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들 역시 하나의 특수한 관점(perspective)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근본적인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향하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길이 열려있는 존재이다.

요컨대, 기독교 학자는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절대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Ream (197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⁸⁾ “A Christian, then should not be trapped by a philosophical naivete that pays more attention to the scientific aspect of problems than the philosophical aspects.”

5) 목적 또는 목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때는 과학의 목적은 실험과 관찰에 의하여 얻은 결과나 자료를 기술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 학자는 과학(학문)을 자연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자기의 직업(vocation)에, 그리고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투쟁의 노력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 생각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의 원천에 의존하여 신뢰성 있는 지식을 얻어야 할 필요성과 나아가 비판적 태도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과 그리스도안에서 창조된 말씀의 통일성을 항상 명심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6) 탐구활동의 결과로서의 학문

과학은 과학자(지식의 주체)가 탐구영역에서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탐구영역의 실재를 파악하는 어떤 활동의 결과이다. 과학자는 자기의 발견을 조직화하고 어떤 이론 또는 공리를 갖고 기술(describe)하려고 노력한다. 과학은 실재에 대한 단순한 복사나 반영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선(universal line)을 볼 수 있는 타당한 설명적 체계이다. 여기서 기독교 학자의 과업은 현존하는, 또는 흔히 인정될 수 있는 이론들까지도 다양한 비판형태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자는 한 이론이 어떤 내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cism)과, 그러한 이론이나 공리의 배경, 틀, 또는 관점에 대한 탐구를 하는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cism)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학자는 또한 어떤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또한 인생관—세계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들어 정의(justice)의 근본적 규범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정치학자는 다른 인생관—세계관을 갖고 국가안보 이론을 보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칼빈주의적 인간관이 진화론자의 그것과는 다르며 칼빈주의적 실재관

이 스콜라 철학적인 모델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학문(과학)의 이용

모든 학문적 결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이점에서는 과학자와 과학의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은 타락한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서 인간은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과학(학문)의 이용 역시 사랑과 공의의 근본적 규범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이중적 책임이다. 과학자 자신이 자기의 영역에서 타당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해야 하는 과학자의 독특한 윤리적 책임이 있고, 또 학문의 업적을 인류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consumer)편의 책임이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와 사명을 고찰해 봄으로써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과업을 규명해 보았다.

고등교육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기독교 고등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간 경향, 그리고 만약 일관된 기독교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제공해 주었다. 이 고찰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있는 전통, 곧 칼빈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의 주요 윤곽에 대한 인식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기독교 대학은 단순히 일반 학과목을 가르치고 그에 덧붙여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 대학은 보다 근원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서 그 모든 교육적 활동이 운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우주론, 신론, 인간론, 존재론, 성경적인 인식론, 성경적인 가치론적 기초위에서 그 교육적 교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시작 전후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학교, 다른 과목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성경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학교, 매일 채플을 갖고 일년에 몇번 종교적인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만족하는 학교, 소위 이름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만족하는 학교는 스스로 그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고 특색이 없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 대학은 대학의 이념, 교육원리, 목적, 내용, 방법, 행정, 분위기, 잠재적 교육과정까지도 그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의 계몽적이며 구속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진정한 사명은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문화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통합을 가능케 하는 교육의 수행에 있다. 기독교 대

학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 삶의 전 영역 및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통해 배우는 학문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대학만이 가지는 독특한 과업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신앙과 학문적 탁월성을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조화시킬 줄 아는 교수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대학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며 기독교적인 분위기(atmosphere)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캠퍼스에서 반 기독교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때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위기를 느껴야 한다. 기독교 신앙과 철학이 없는 기독교 대학의 실체는 자기 중심적인 이익추구와 상업주의, 족벌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적인 생산물을 산출해 내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개발과 기독교문화의 창조, 그리고 그 전수에 실패한다면 기독교 대학의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일반대학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오히려 확고하게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특색있는 교육기관으로 존재할 때에 그 정체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대학이 단순히 일반대학과 똑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대학도 이제 해방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두가지의 주요한 과업 곧, 기독교 자체의 확장과 기술교육의 도입을 통한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의 개념이 약화되어졌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우리 사회에서도 다가오는 미래속에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위기를 극복하고 그 독특한 교육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그 모든 교육활동이 근본적으로 창조(Creation), 타락(Fall),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Redemption)이라고 하는 성경적 종교적 동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참고 문헌

- 1) 한말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기독교계통 사립학교로서는 이화학당(1886), 숭실학당(1897), 세브란스의학교(1905) 등이 있었다. 이들 학당들은 일제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후 점차 전문학교로, 그리고 대학으로 발전해 갔다.
- 2) cf. 신 6 : 4-9
- 3) cf. J.C. Coetzee, *Inleiding Tot Die Algemene Teoretiese Opvoedkunde*, Preyoria : J.L. Van Schaik, 1973, pp. 283-284.
C. Jaarsma, *Teaching According to the ways of child life. (in Jaarsma, C, ED.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Grand Rapids, Michigan : WM.B. Eerdmans. pp. 280-350). p. 343.*
P.G. Schoeman,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Education*, Durban : Butterworths. 1980, p. 39.
J.L. Van der walt E.I. Dekker, *Fundamentele Opvoedkunde vir Onderwys-studente*. Silverton : Promedia-publikasies, 1983, p. 96.
S.S. Barnard, *Wat is die skool? Woord en Daad*, 22(240) : 7, Augustus, 1982, p. 7.
- 4) cf. 창 1 : 1 ; 요 1 : 3 ; 롬 11 : 36 ; 골 1 : 16.
- 5) cf. 롬 1 : 20.
- 6) H.J.S. Stone, *Struktuur en Motief van die Onderwysstelsel*. Bloemfontein : Sacum, 1974, p. 89.
- 7) P.G. Schoeman,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Education*, Durban : Butterworths 1980, p. 39.
- 8) A.H. De Graaff,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1968, p. 114.
G. Spykman, *Society, State, & Schools : A Case for Structural and Confessional Pluralism*.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81, pp. 158-159.
- 9) Vitruvius, *On Architecture*, I, i, 3. Tr. by F. Granger in *Vitruvius on Architectur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1945, p. 9.
- 10) Cicero, *On Oratory*, II, i, Tr. by E.W. Sutton and H. Rackham in Cicero, *De Oratore* I, II Cambridge, 1948, p. 201.
- 11) Tr. by C.G. Browne and J.E. Swallow,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New York, 1894, vol. VII, pp. 398-399.
- 12)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VII. Tr. by P. Holmes in *Ante-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1 reprint, vol. III, p. 246.
- 13) "On Idolatry *op. cit*, VII, *idem*, pp. 66-67.
- 14) Cf.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 G. Lamb, New York 1956, Part Three, Chap. IX.
- 15) C.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76, P. 88.
- 16) Clement, *The Stromata*, I, v. In *Anti-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1 reprint, p. 305.
- 17) In *Ante-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1 reprint, vol. IV, p. 393.
- 18) "Soliloquies," I, 7, Tr. by C.C. Starbuck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6 reprint, vol. VII, p. 539.
- 19) S. Fowler, *Issue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E, 1980, p. 3.
- 20) *De Trinitate* XII, Tr. by A. W. Haddon,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6 reprint, vol. III, p. 165.
- 21) *On Christian Doctrine*, II, 40. Tr. by J.F. Shaw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Grand Rapids, 1956 reprint, vol. II, p. 554.
- 22) S. Fowler, *Ibid.*, p. 2.
- 23) Vergerius, *De Ingenuis Moribus*, c. 1404. Ed. and tr. in W.H. Woodward, *Vittorino da Feltre and Other Humanist Educators*, New York, 1963, p. 110.
- 24) C.B. Earey, *Ibid.*, p. 135.
- 25) *Ibid.*, p. 88.
- 26) *Institutes*, II, ii, 15. Tr. by F.L. Battles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1960, pp. 274-275.
- 27)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Grand Rapids, 1958 reprint, vol. II, pp. 37-38.
- 28) *Corpus Reformatorum*, vol XXXVIII, *Pars Prior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X, Pars Prior Brunsvigae, 1871, col. 21. Virtually the same statements is to be found in the Ordinances of 1561, op. cit., col. 100.

29) R. Hofstadter and W. Smith, *American Higher Education : A Documentary History*, Chicago, 1961, p. 6.

30) S.E. Morison,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ss, 1935, p. 434.

31) Louis Berkhof, "Our School's Reason for Existence and the Preservation Thereof," in *Semi-Centennial Volume...*, Grand Rapids, 1926, p. 117.

32) "Publicatie van den Senaat der Vrije Universiteit Inzake Het Onderzoek ter Bepaling van de Weg die tot Kennis der Gereformeerde Beginselen Leidt," in J. C. Rullmann, *De Vrije Universiteit : haar ontstaan en haar bestaan*, Amsterdam, 1930, p. 193. See also A. Kuyper's inaugural address of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1880.

33) Berkhof, op. cit., p. 129.

34) *Ibid.*,

35) *Ibid.*, pp. 131-132.

36) A.F.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1975, pp. 21-29.

37) cf. 답전 4 : 3-5

38) cf. 골 2 : 3

39) cf. 히 11장

40) cf. 히 13장

41) cf. B. Duvenage, *The Light of the Scriptures in the Sciences-Does it make a difference? The Essence of Christian Scholarship*. Potchefstroom : pu for CHE 1983, p. 9.

42) *Ibid.*, p. 7.

43) cf. I. Illich, *Deschooling Society*, London : Calder & Boyars, 1974.
I. Holt, *Freedom and Beyond*.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6.

44) B. Durenage, *Ibid.*, p. 14

45) R.J. Ream, *A Christian Approach to Science and Science Teaching*, Philadelphia : Presbyterian Pub. Co., 1972.

46) R. Harre, *Creativity in Science* (In. Dutton & Trsaust,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Science and Art*), 1981.

47)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 126.

48) R. J. Ream, *Ibid.*,

구속사적 성경해석 및 적용 (설교)에 대한 논쟁연구

The Study on the Controversies of the 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Preaching) of the Scriptures

박 종 칠*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 차 ◇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한계

제 1 장 : 구속사 정의와 관계된 문제점

제 2 장 : 철학적 구속사적 해석 역사
고대교회—18세기
빌헤름 딜타이
에른스트 트렐취
마르틴 켈러
칼 바르트
빌헤름 비셀
H. 헬바르트
폰 라드
오스칼 쿨만
W. 판넬베르그
경험신학들

제 3 장 : 성경적 구속사 구조
1. 말씀과 역사
2. 구속사 계시의 구조와 특징
3. 구속사와 유형론
4. 구속사와 교회사 관계
5.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의 경륜

* 조교수, 구약학전공